



種 畜 改 良

Vol. 6, No. 3

Registered Animal News

1984. 9.

홀스타인 젖소 도입방향의 전환

事務局長 朴 信 浩 (농학박사)

○ 우리나라의 낙농은 도입으로 이루어졌다.

1962 년도에 불과 2,406 두에 지나지 않았던 젖소의 사육두수가 1984년 6월 1일을 기하여 30 만두가 넘었다. 엄청난 수적 증가이다.

농수산부에서 발간되는 낙농자료에 의하면 1962년 이래 1981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외국으로부터 젖소가 도입되어 왔으며 가장 적었던 해가 1963년의 271 두였고 가장 많았던 해는 1978년의 21,903 두였다. 그리하여 1983년 말에는 10만 두가 넘는 젖소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의 다섯 나라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젖소사육은 지금까지 외국으로부터의 도입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비단 암소의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모우 역시 모두 외국에서 도입한 소를 정액생산용 종모우로 사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 손으로 우량종모우 한마리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입된 젖소의 질을 보더라도 1970년대에는 거의 전부가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커머셜 (Commercial Grade) 젖소를 도입하여 질 보다는 양적 성장에 주력하였고 1982년부터는 좀 높아진 개량의식을 감안하여 혈통등록우의 도입으로 도입정책이 바뀌어 나가서 그후 도입되는 젖소는 전부 혈통등록된 젖소이다.

정부의 과감한 낙농정책과 낙농가의 꾸준한 노력과 아울러 우리의 경제성장 여건은 낙농을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표-1〉 젖소 사육두수 및 수입두수 동태

연 도	사육호수	사육두수	호 당 두 수	젖소도입두수 (사육두수비)
1962	676	2,406	3.6	1,085 (45.1%)
63	813	3,538	4.4	271 (7.7%)
64	1,087	5,199	4.8	905 (17.4%)
65	1,210	6,612	5.5	600 (9.1%)
66	1,478	8,471	5.7	626 (7.4%)
67	1,818	10,360	5.7	306 (3.0%)
68	2,145	13,760	6.4	1,111 (8.1%)
69	2,322	18,820	8.1	3,191 (16.9%)
70	3,126	23,624	7.6	1,607 (6.8%)
1971	3,270	30,009	9.2	1,755 (5.8%)
72	3,788	36,128	9.5	2,816 (7.8%)
73	5,488	52,424	9.6	4,563 (8.7%)
74	7,378	73,195	9.9	5,460 (7.5%)
75	9,415	85,542	9.1	777 (0.9%)
76	10,174	89,688	8.8	1,824 (2.0%)
77	13,933	109,243	7.8	12,150 (11.1%)
78	16,387	135,803	8.3	21,903 (16.1%)
79	17,170	163,299	9.5	16,214 (9.9%)
80	17,666	179,841	10.2	4,390 (2.4%)
1981	18,229	194,205	10.7	-
82	22,536	228,248	10.1	9,507 (4.2%)
83	29,537	274,780	9.3	11,047 (3.6%)
				(102,108)

흔들리는 축산중에서 낙농만은 결코 흔들리면 안된다는 모든 사람들의 여망속에 도입젖소에 의해서 자라온 이 낙농이 이제부터의 낙농시책 여하에 따라서 건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달려있기에 이제 모두 우리가 처해있는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1962년 이래 사육두수와 사육호수 및 도입두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표시하면 다음(표1)과 같다.

○ 젖소 도입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1962년도 젖소사육두수가 2,406두에 불과하였을 때에 1,085두가 그 해에 도입되었다.

이는 사육두수에 대비하여 절반에 가까운 45.1%였다. 한창 낙농발전이 빠른 성장 속도로 자라고 있던 1978년의 21,903두의 도입은 사육두수 대비 16.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의 도입두수는 국내 전체의 사육두수 증가면이나 전체 우유생산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우유의 수급 계획상 원유의 생산 공급이 모자라는 경우는 도입 젖소의 수를 증가하여 공급면에서의 차질을 없애려는 것이 과거의 낙농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제는 젖소의 사육두수가 30만두를 넘어섰기 때문에 연간 1만두정도 도입한다고 해도 이는 겨우 사육두수 대비 3%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젖소도입의 의미는 수적인 면에서 볼때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육두수의 증가나 우유생산의 증가면에서 본 젖소의 도입은 중단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조금 더 숫자 풀이를 하여 보면 30만두 중에는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2세 이상의 암소가 약 18만두 있다. 이 중에서 임신될 수 있는 수를 낮게 잡아 70%로 보고 임신된 것 중에서 정상으로 분만할 수 있는 분만율을 80%로 보면 약 10만두의 송아지가 생산되는데 암송아지는 이 중에서 절반인 5만두가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우리가 우려를 하는것은 「우유의 소비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증가되는 젖소의 사육두수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자급사료 기반이 확장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거와 같은 젖소의 도입은 재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젖소 도입은 주로 초지조성을 실시한 농가에 입식되어 왔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정부시책에 의거 초지조성을 하는 농가에 대한 젖소 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는 두가지의 가능한 시책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도시근교의 사료 기반이 없는 농가에게 초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낙농을 자급사료 기반이 있는 지대로 소개하는 시책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육성하는 목장을 정부가 만들어 여기서 육성된 젖소를 초지조성 농가에 입식시키는 시책이다. 차체에 전반적인 초지조성 시책의 재고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상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분명히 젖소의 도입방향은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젖소 도입방향의 전환

지금까지의 낙농은 量的성장면에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는 큰 성공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식량을 공급하는 산업에 대한 비교우위론을 논하는 사람은 무식하다는 어느 일본잡지의 논자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의 물결이 세차게 몰아 부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낙농이 뿌리를 내릴려면 質的 성장이 필수적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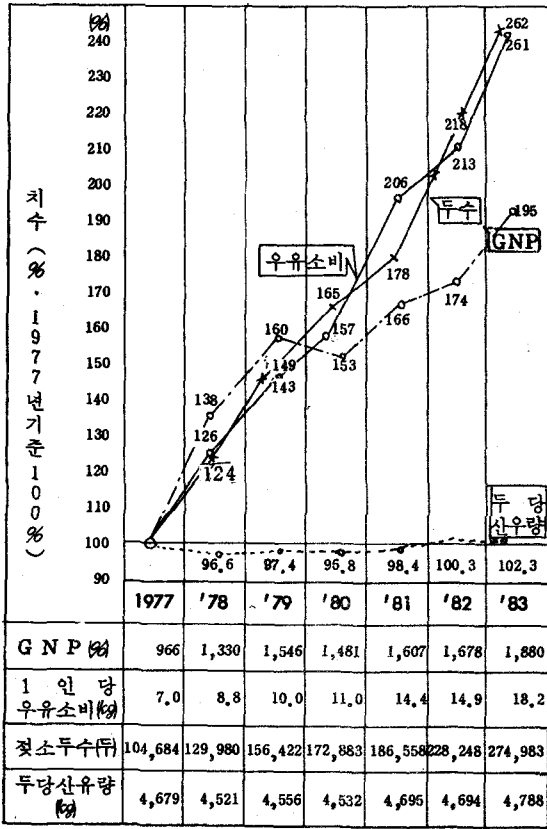
낙농에 있어서 질적 성장이란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단 한마디로 표시한다면 두당 산유량의 증가이다. 두당 산유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여기 또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종자가 좋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혈통도, 능력도 모르는 젖소들을 잔뜩 도입하였다. 1982년부터 도입하는 등록우도 능력면에 있어서 종축개발협회가 도입한 것을 빼면 결코 높은 것이 아니었다.

다음 도표(표-2)에서 보듯이 두수나 우유 소비량은 모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두당 산유량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었다.

이 두당 산유량은 능력검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당년의 총 우유생산량을 성우 두수로 나눈 농수산부 수치이기는 하나 어느정도의 경향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표-2) 1977년도를 기준한 우유 소비, 젖소 두수, 두당 산유량의 변화



지 4월호에 필자가 쓴바 있으나 미국에서는 연간 2회 착유에 25,427 kg의 우유를 생산한 홀스타인이 나타났다. 올림픽이 열린 로스엔젤레스의 동남쪽에 있는 치노계곡(Chino Valley)의 한 목장은 두당 평균 산유량이 무려 12,000 kg나 되는 곳도 있어서 우리에게도 개량에 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홀스타인 젖소의 개량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풍토와 여건에 맞는 우수한 종모우를 선발하여 그 정액을 농가가 사육하는 젖소의 생산과 체형에 맞추어 계획 교배하여 나가는가 하는데 있기 때문에 등록·심사·검정업무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고, 우량종모우를 선발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혈통과 능력을 가진 암소 群이 필요한데 이를 Elite Cow(엘리트 암소)라고 하며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본 협회는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200두씩을 도입하여 종축개량회원 농가에 입식시키고 컴퓨터에 의해 계획교배시킨 다음 여기서 생산된 숫송아지 중에서 우수한 것을 골라 다시 이들 회원 목장에서 후대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여 생산된 후대검정필 종모우의 정액을 생산하여 낙농가에서 공급하게 되면 우리도 선진 낙농국가의 대열에 끼게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입정책은 여기에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이러한 도입정책의 변경과 아울러 도입절차의 전환도 차제에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종축개량측면에서 본 정액수입정책등 일괄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해답은 자명하다. 앞으로의 젖소도입은 오직 질적 향상을 위해서만 도입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우유>

가축품평회 출품 축 손질과 관리(홀스타인종 젖소)

등록부 차장 유 한 중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축산진흥대회도 연륜을 더하여감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참여의식이 높아가고 우수한 가축을 선발하여 출품하는 기술도 많이 향상되었다.

첫째, 축산물 수요증가에 대처한 증산의식 고취 둘째, 우량가축의 선발활용으로 가축 자질 개량도

셋째, 양축농가의 애축심을 앙양하여 축산진흥의 파급효과 거양

넷째, 우수한 품종을 선발전시하여 개량도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 대회에 젖소를 출품하는 낙농가나 지도하고 심사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며 회원 여러분께서 사육하는 모든 홀스타인 젖소의 선발과 도태에 참고가 된다면 더욱 더 큰 보람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외국의 가축품평회에 비교하여 본다면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되며 이 품평회가 가져다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